

“금품 전달 기록한 휴대전화, 아직 증거 제출 안했다”

‘사건 브로커’ 재판서 핵심 증인 ‘뇌물 장부’ 증언...결정적 증거 되나

“돈 건넨 정황 날짜별로 정리...필요하다면 휴대전화 복원해 제출할 것” 날짜·금액 확인 댄 자금 용처 파악될 듯...창호업체 관급비리 의혹도

‘사건 브로커’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휴대전화에 ‘장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 수사로 수사무마·인사청탁·관급 자재 납품 비리가 북마전(伏魔殿) 양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뇌물 장부의 존재가 드러난 셈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무마 청탁자 B(44)씨의 동생 C(42)씨는 “휴대전화에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금품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고 증언했다. A씨와 공범은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이들 형제에게 “돈이 건넨 건 여 러 차례인데, 건네준 돈이 제대로 로비 명목으로 잘 쓰는지, 돈이 총 얼마나 건네졌는지 걱정될 것 같은 데 혹시 장부 같은 것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 B씨는 “A씨를 많이 믿고 있었던 터라 A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체히 적어 놓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돈을 건네면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A씨와 통 화를 녹음한 것이 있고, 건네 준 자금은 코인을 교

환해 주는 방식이라 코인 환전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 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동생 C씨는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에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돈을 갖고 와서 건넨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 있었다. 가족 중 한 명이 휴대전화 고장 나서 그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하라고 줬다”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에 휴대전 화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디지털포렌식(디지털 복원)을 하면 기록을 되살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휴대전화를 복원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제출하겠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들 형제가 지난 2020년 12월 9·22·27일 A씨 측에게 세차래(1억원, 5억 원, 5억원) 전달한 11억원이었다. A씨 측은 이 중 5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일명 ‘배달사고’를 주장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 형제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이 뿐만 아니고 수시로 수 천 만원을 전달 했다”면 서 “A씨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누구에게 어떤 용도 로 썼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에게 전달한 금액과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A씨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청탁자가 누구인지도 드러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휴대전화 ‘장부’는 이 사 건과 관련해 수면 위에 떠오른 전·현직 검·경 관계 자, 정치계 인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자체 납품 비리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2020년 12월 뇌물을 주러 만난 자리에서 A씨가 창호 업체와 관련해 이야기했다”면서 “A씨가 ‘서기관 관련 뇌물 사건을 일을 봐주는 (업체 대 표)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곳에 관급공사 일이 많다. 그 자리에 C씨를 얹혀 신분 세탁하면, 높은 사람들이 일을 봐주지 편하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

다. A씨가 관급공사 수주에 동참할 것을 이들 형제 에게 제안했다는 증언이다. 사건 브로커 사건은 한 때 공범이었다가 배신으 로 갈라선 범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A씨를 전적으로 믿고 사건무마 청탁을 하며 금 품을 제공한 B·C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금품 제공 경위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털어냈다. 이들이 입을 연 계기는 A씨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기 사건 등과 관련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거액을 줬음 에도 경찰이 수차례 B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배신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형제는 지난해 4월 광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A씨의 비위를 제보한데 이어 지난해 8월 검찰에 다시 제보해 검찰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 시30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브로커’ 관련 현직 치안감 압수수색

당사자는 “사실무근”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 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6일 충북 충주시 중앙 경찰학교 A 치안감의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같은 시각 A 치안감 주거지와 과거 A 치 안감이 근무했던 광주경찰청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시절 (2021년 7월~2022년 6월) 사건브로커에게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치안감 재임 시절 정경·경감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 선·후배들 때문에 A씨를 알게 됐고, 일 때문에 광주경찰청에 온 A씨가 ‘청 장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고 말해 청장실에 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전부다”면서 “여러 의혹 이 제기되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다. 검찰수사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 토지주 “땅 안판다”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을 장산리에 대동령을 지낸 전두환씨 유해를 안장하려던 계획 이 수포가 됐다. 파주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난 가운데 토지(산) 매매 가계약 기간이 완료됐는데도 본계약이 체결 되지 않자 토지주가 매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씨가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소유자 는 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계약 기간이 이미 끝 났는데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물을 거 뒤들었으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 혔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우리 땅에 전두환 전 대통 령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부 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 에서 가계약 기간마저 끝나자 매도를 포기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 치중인 전씨의 유해는 당분간 안장이 쉽지 않을 전



21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장산리에 내걸린 전두 환 유해 안장을 반대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망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복讖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 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 날을 맞고 싶 다’며 사실상의 유언을 남겼고, 이에 맞춰 유족은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 다. /연합뉴스



“나눔은 즐거워” 사랑의 연탄 전달 6일 오전 파주시 북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중흥3동 취약계층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부 탄 경운기, 화물차에 받혀 남편 숨져

나주경찰, 50대 운전자 입건

부부가 탄 경운기가 화물차에게 들이받혀 남편 이 숨지고 부인이 다쳤다. 나주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50)씨를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차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나주시 산포면(남

평 방면) 도로에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B (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경운 기에 같이 탄 아내 C(68)씨, 운전자 A씨도 다쳤다. 사고를 당한 경운기에는 인근 시장에서 팔기 위 한 농산물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교육청 간부공무원 숨진채 발견

목포에서 전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목 포시 한 아파트에서 도교육청 간부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이날 오 전 출근했다가 점심때 조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집에서는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경 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 으 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